



1월 동향

5	제11차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6	제16차 행정제도개선위원회 참석 - 직제개편(안)에 대한 조합입장 재설명
12	총장면담 - 처장 및 부처장 보직 직원 임명 요구
12	제17차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개최
12	제12차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14	제22차 사립대연맹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참석
15	제193회 기획위원회 참석 - 실처장 직원 임명 규정 개정 요청
16	제13차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 정이사 추천 후보 7명 확정
18	이사회 참석 - 정이사 추천 후보 7명 명단 이사회 보고
19	제17차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개최
19	제9차 학원정상화직원대책위원회 개최
21	제73회 인사위원회 참석
26	제19차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개최
27	부서별 연수보고서 평가 참석
28	영남지역 대학노동조합협의회 참석

◆ 2009년 대학교육 관련 현안 이슈페이퍼 4종 발간

1.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연구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개념과 쟁점
3. 대학자체평가제도 개선 과제
4.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http://www.kcue.or.kr/bbs/view.php?gb=pds&page=1&idx=210>

◆ 2009 세계대학 중장 포럼 자료집

- ☉일 시 : 2009년 11월 20일
- ☉장 소 : 이화여대
- ☉주 제 :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http://www.kcue.or.kr/bbs/view.php?gb=pds&page=1&idx=207>

◆ 대학 직원, 편한 직장은 옛말 "전문성을 갖춰라"

- ☉매년 지원자 '폭등' ... 건국대 채용 경쟁률 600:1 넘어서
- ☉구직자들 "안정적이고 편해" ... 직원들 "안일함 버려야"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58954>

◆ 등록금 동결 '뜨거운 감자'로

- ☉등록금 동결 대학들 '초긴장 재정'... 경쟁력 저하 우려
- ☉지원은 안하고 동결 요구에 불만 ... "물가상승률 정도는 올려야"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58919>

◆ 2009년도 대학 자체평가 결과 공시

- ☉22일, 해당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 알리미 사이트에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58913>

時 論

“정치는 가도 행정은 남는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몇 해 전 의약분업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유행과도 같았던 말이다. 당시 모든 약봉지에는 이 글귀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직도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이란 조직 역시 그 각축전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매듭지었다. 제10대 총장이 새로 선출되었고, 재단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가 사학분쟁조정위에 추천되었다. 행정 조직 역시 새로운 직제로 재편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인사도 마무리됐다. 얼마 뒤면 매 학기 되풀이되는 승진인사도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그래왔듯 인사철이면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뒤얽혀 한바탕 흥역을 치르기 일쑤다.

인사는 만사!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매번 일상다반사로 겪는 통과외로 치부하기에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던가?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승진의 절대 원칙은 반드시 일한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보답이어야 하며, 특정인들을 상대로 한 인기투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누구와 친한 사람이, 누구누구에게 잘 보인 사람이 평가를 더 받는 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조직에서 개인의 평가는 그 개개인이 수행해 온 업무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지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일을 더 잘 했나를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조직에서의 인사는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뿐인가. 부서이동, 즉 하나의 행정단위 조직을 구성하는 문제에서도 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면 따라서 다른 조각이 넘어지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개개인의 역량과 경력, 성향에 맞는 업무를 찾아내고, 찾아주며, 그렇게 합쳐진 부서 구성원들 간의 공합이 제대로 맞을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권한 뒤에는 책임이...

물론 말로는 쉽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그동안 그래왔으니까...’ 하는 식이어서는 조직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 조직은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어떻게 접근하여 왔는지,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떤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 본부당국이 늘 앵무새처럼 되뇌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은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라는 말이다. 얼핏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만큼 뒤따르는 무거운 책임감도 존재한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부서장은 부디 최선의 노력과 각고의 고민 끝에 결론을 도출하고 난 후에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라는 말을 입에 담은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정치는 가도 행정은 남아...

우리 대학은 4년 주기로 총장이 바뀌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마다 보직교수(처·실장, 기관장 등)들이 바뀐다. 사실 이러한 조직은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말이 있듯,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는 가도 행정은 남는다’. 보직교수들에게 행정직원의 중요성을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직원에 있어서도 임용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의무는 대학행정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조직은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의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어떠한 위기라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전혀 다른 사상과 스타일을 지닌) 리더들이 우리 대학을 거쳐 가겠지만 행정은 언제나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우리 대학의 리더였던, 그리고 앞으로 리더가 될 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닦쳐올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행정직원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칼럼터

노동조합 이벤트 <http://union.daegu.ac.kr>  
Culture 4U 행사는 매주, 매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갑니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Culture 4U 이벤트 당첨자 발표**

“2월 월간이벤트 (도서정보팀) 김 지 홍”  
“2월 첫째주 주간이벤트\_다빈치커피 2잔 (교육혁신팀) 권 병 목, (홍보팀) 임 지 영”

추첨은 차은희(경상대학 행정실)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Happy Birthday | 이달의 생일자 | [2010. 2. 1 ~ 2. 28]

이름	소속	생일	이름	소속	생일
정정석	홍 보 팀	02.01(☉12.18)	손대영	기 획 팀	02.22
김운태	공과대학 행정실	02.02	김성곤	총 무 팀	02.23
조규병	관 재 팀	02.09(☉12.26)	남윤순	수 업 학 적 팀	02.24
김석범	관 재 팀	02.10(☉12.27)	이용욱	정 보 화 개 발 팀	02.25
김용규	정 보 통 신 운 영 팀	02.10(☉12.27)	강희복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02.26(☉1.13)
심선미	사범대학 행정실	02.10	박선미	DU문화원 행정실	02.26(☉1.13)
석경희	국 제 교 류 팀	02.12	김언미	정 보 화 개 발 팀	02.27(☉1.14)
이철환	DU문화원 행정실	02.14	박원형	학 생 지 원 팀	02.27(☉1.14)
김문한	비 서 팀	02.15(☉01.02)	이은수	정 보 통 신 운 영 팀	02.27(☉1.14)
조영국	국 제 교 류 팀	02.15(☉01.02)	김육진	취 업 지 원 팀	02.29
박창록	재활과학대학행정실	02.20(☉01.07)	조합원	여러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